

< 중국출장결과 보고 >

출장명 :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산동성 김치 및 채소류 생산 동향

1. 출장 목적

- 1) 중국 산동성 주요 채소류 생산 및 유통 조사
 - 산동성 채소류 및 김치 생산 동향
 - 산동성 내 김치 생산 여건 변화
- 2) 중국 수출용 김치 생산 및 수출동향
 - 최근 산동성 김치 공장 수, 규모별 생산
 - 생산에 필요한 원료 조달(계약재배, 포전거래 등)
 - 김치 관련 양념류 생산 및 조달 방법, 단가
- 3) 한국내 원산지 표시제로 인한 중국 김치 가공공장 동향 파악
 - 생산 및 주문량 변화
 - 운영중인 김치 공장 업체 수 변화 및 규모에 따른 영향
 - 김치 가공공장 수출 경로(대리점, 수요처)의 변화

2. 출장자 · 출장기간 및 출장지

소속	출장자	직위	담당품목	출장기간	출장지
농업관측 정보센터	김재한	초청연구원	대파 · 쪽파	11월11일(수)~ 11월13일(금)(2박 3일)	청도, 평도, 교주, 청양

3. 출장일정 및 주요 방문기관

일자	시간	목적지	방문기관	비 고
11일 (수)	오후	청도	· aT Center	· 산동성 내 채소 및 김치 공장 관련 문의
	오후	청도→래서	· 채소류 가공공장	· 배추, 당근 산지 동향 · 최근 채소류 가격 및 유통(수출 및 내수) 변화
12일 (목)	오전	덕성식품	· 김치 가공공장(덕성김치)	· 산동성 김치 수출 동향 · 최근 김치 가공공장 동향
	오후	교주	· 김치 가공공장(해익식품)	· 산동성 김치 수출 동향 · 최근 김치 가공공장 동향
13일 (금)	오전	청도	· 까르푸	· 농산물 소비자가격 및 상품성 조사

4. 출장 결과

가. 농수산물유통공사 청도지부

□ 면담자 : 성시찬

○ 개관

- 산동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큼. 산동성은 중국 전체 농업 생산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청도 지부는 2006년에 산동성 위주의 수출입 관련 업무 지원키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지 파악과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함.
- 매월 1회 고추, 마늘, 양파를 비롯한 채소류들의 산동성 지역 생산 면적 동향과 작황, 산지 가격을 조사함.
- 필요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자 창고, 항구에 있는 창고 위주로 현장검사를 실시함.

○ 김치 공장 동향

- 중국 내 김치 공장은 대체로 100여개 내외이며, 이 중 산둥성에 70개가 있고, 산둥성에서 청도 지구(교주, 평도 등)에 60개 있음
- 2006년까지의 김치 공장 동향
 - 김치 공장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97년 이후 한국 내 IMF로 인해 인건비, 원료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해외 설립을 추진함. 또한, 중국에서도 세금감면, 저임금, 무상임차 등의 지원을 실시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외국에서도 중국내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따라서 '97~'99년 김치 공장 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음. 이러한 성과가 2002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인해 김치 수입량이 2003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저임금(월 1천 위안 내외), 세금 감면 등의 정부 지원은 2006년까지 지속되었음.
 - 2005년 기생충 파동이후 김치 공장은 위생시설을 완비해야 했으며, 유예기간없이 1~2억원(한화 기준)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했음. 이로 인해 중소 기업체들은 많이 탈퇴가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기업체는 규모가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였음.
- 2006~2008년 김치 공장 동향
 - 2006년 이후 노동자의 급여는 이전의 월 1천 위안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급여의 60%(사업주 40%, 노동자 20% 부담)에 달하는 금액을 별도의 각종 보험으로 예치해야 했음. 이러한 정책은 특별한 유예기간 없이 소급(1~2년)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07~2008년 중·소규모업체들의 도산이 많았으며, 야반도주 현상도 많았음.
- 원산지표시제이후의 김치 공장 동향
 - 2008년 12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주문량이 크게 줄어 대다수의 업체들은 휴업, 가동률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김치 계약업체의 대금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몇몇 김치 공장들은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음.

○ 기타 사항

- 한국 수출김치

- 중국에서 재배되는 배추는 통배추, 비결구 배추 등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음
- 과거 중국 김치는 결구되지 않는 배추가 사용되었음. 이로 인해 중국 김치는 쉽게 물러지고, 신맛이 강했음. 하지만 2002년 이후 한국으로부터 종자를 가져와서 한국에 맞는 배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김치와 맛이 비슷함. 또한, 일부에서는 한국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김치를 생산할 정도로 한국김치에 근접함.
- 일본수출 김치
 - 일본업체는 '05년 이후 위생설비를 완비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대다수 맛김치의 형태로 수출하며, 6~7개 업체가 수출을 많이하고 있음. 중국인 경영주가 운영하고 있음.
- 내수용 김치
 - 산동성김치는 대부분 수출용 김치이나 내수용도 일부 있음. 내수용도 배추 김치 위주로 소비되며, 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해서 유통됨. 주된 소비층은 조선족이나 최근에는 김치의 기능성이 소개되면서 중국인들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음.

나. 래서 채소 가공공장

□ 면담자 : 張加森(장가삼)

○ 래서 지역 생산 동향 및 산지가격

- 주요 취급 품목은 당근, 배추, 양배추, 오이 등임. 래서지역 배추는 봄, 가을 작형이 있으며, 봄배추는 2월 15~4월까지 정식이 이루어지고, 4월 20일~7월 20일까지 출하됨. 봄배추 중 하우스배추는 2월 15~말까지, 터널배추는 3월 초~말, 멀칭재배는 4월에 이루어짐.
- 금년 가을배추 재배 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가을철 기온변화는 있으나, 적절한 비로 작황이 좋은 상황임. 이에 따라 가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임. 1모당 7.5톤 내외 생산될 것으로 보임. 산지가격은 500g당 10전으로 거래되고 있음. 작년의 5전보다 상승하였으나

생산 및 출하작업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김치 공장 납품 동향

- 냉장, 신선배추로는 매년 2천톤 내외를 대만, 싱가포르 방면에 수출하고 있으며, 5개 업체 정도가 있음. 아직까지 바이어가 없어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는 않음.
- 그 외 생산된 배추는 대부분 김치공장으로 출하를 많이 하고 있음. 납품 가격은 과거에 계약시에 정했으나, 출하기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타 출하처로 매매해버리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출하시기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최근에는 김치 공장으로의 납품이 크게 감소하였음. 이로 인해 생산된 배추의 산지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납품용 배추를 국내 내수용으로 전환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며, 산동성보다는 남방지역으로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유통은 5톤 트럭으로 되며, 1차에 220~230망이 적재됨. 1망에 10~12개(약 35kg)을 담을 수 있음.



○ 래서 지역 당근 생산 및 수출

- 래서 전체는 8톤 내외 생산되고 있는데, 생산량의 50%가 수출용, 50%가 내수용으로 유통되고 있음. 생산 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작황은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보임. 산지 가격은 500g당 40~45전으로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 산지 가격에서 세척과 포장까지 드는 비용은 7~10전/500g임.
- 래서지역은 1월 20일 이후 파종하여 5월 1일 이후 출하하는 하우스당근

형태임. 2006년 이후 당근 생산농가가 크게 증가하여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 주문에서 한국 도착에 소요되는 기간은 3일 정도 걸림. 최근에는 수출주문량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용으로 전환되고 있음. 금년 산지가격이 높아서 내수용으로 전환되어도 수지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황임. 중국내 당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2006년 이후 당근의 기능성이 소개되면서 주스용 등으로 사용되는 양이 많기 때문임.
- 래서지역은 1월 20일 이후 파종하여 5월 1일 이후 출하하는 하우스당근 형태임. 2006년 이후 당근 생산농가가 크게 증가하여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다. 덕성 김치

□ 면답자 : 김치공장 총경리

○ 설립 및 생산 현황

- 덕성식품유한공사는 2002년에 설립하였고 한국인이 운영하다 2006년경에 현재의 총경리(중국인)으로 교체되었음. 평도에는 10군데 정도의 김치 공장이 있는데, 덕성김치가 가장 큰 규모임. 1개월에 1천톤 내외 생산을 하고 있으며, 3개 작업장(김치공장+고추가공공장)이 있음. 전체 부지는 17무(3,400평)에 달함. 생산된 김치는 90% 수출용, 10% 내수용으로

로 이루어지고 있음. 수출용 김치는 대부분 한국이고, 나머지는 태국, 몽골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상표는 '우리집 김치'로 유통되고 있으며, 공장내 농약 등의 검사실과 살균처리를 완비하고 있음. HACCP인증을 받아서 회사이름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회사에 전문 무역직원을 두고 통관까지 담당하게 함. 인천항에 도착하면 전문 수입업자에 매각을 하고 이후 15일 이내에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 김치 재료 조달

- 300무의 배추 재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지에서 일꾼을 모집해서 생산하고 있음. 연간 4천톤 정도의 생산하고 있음. 여름철에는 내몽골지역에서 계약재배해서 조달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제 이후의 생산 및 수출 변화

- 수출 주문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김치 수출은 냉장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이루어지며, 20pt(20톤), 40pt(40톤)컨테이너 두 종류가 있음. 2008년까지는 1주일에 3~4군데 업체에서 10컨테이너 내외의 주문을 했으나, 최근에는 1주일에 4~5컨테이너로 수출 주문량이 크게 감소하였음. 주문 주기는 7일에 1회 정도됨. 이로 인해서 3개 작업장 중 1개 작업장만 가동하고 있음. 타 업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며, 폐업을 하기보다는 휴업 또는 가동률을 낮추고 있음.
- 수출은 대부분 수입업체의 주문을 통해서 이루어짐. 최근 수입업체가 교체되고 있어 오래 지속된 곳이 없음. 이로 인해서 바이어 유지를 위

해 생산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낮추는 업체가 많음. 수입업체는 한국인들이 대다수인데, 최근에는 매입하고 결제를 해주지 않거나 사기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덕성김치에서도 2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음.

- 김치 생산비는 톤당 400불 내외이며, 판매 이익이 2004~2005년에 톤당 70불 내외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0~20불로 크게 감소했음. 기업체에 따라서는 잦은 수입업체의 변동으로 인해 더 낮은 수익을 남기는 경우도 많음.
- 김치 수출가격은 톤당 500불로 내수 가격보다 높지 않은 상황임. 대체로 조선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내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었음.

○ 김치 생산비 관련

- 김치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인건비는 비슷한 상황임. 인력은 인근 지역의 유희노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1,500~1,600원/월이 됨. 타 지역에서 고용하는 인건비는 2,000원 이상 됨. 평균 톤당 인건비는 30원 이상 상승한 상황임.



라. 청도해익식품유한공사

□ 면담자 : 김구일

○ 설립 및 생산 현황

- 해익식품은 2005년 3월에 설립하였으며, 교주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임. 공장부지는 5천 m^2 (1,500평)이며, 직원은 130명임. 김치 생산은 1개월에 300톤 생산하고 있음.
- 김치에 필요한 배추는 농장과 계약재배를 통해 이루어짐. 1~3월에는 톤당 650원, 4~6월에는 톤당 520원, 7~9월에는 1천원, 10~12월에는 520원에 거래됨.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7~9월에는 내몽골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하며, 물량은 7,500톤임. 반면 11월~1월 생산량은 다른 시기보다 적은 편임.
- 그 외 필요한 양념류는 원물 형태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매입하는데, 와젓갈류는 공장을 통해서 매입을 함.
- 김치 생산비용은 작년에 비해 높은 상황인데, 이는 몇 년동안 농수산물 시세가 크게 낮아 농민들이 콩, 옥수수 등으로 전환한 농가들이 많았음.



○ 수출입 현황

- 해익식품은 한국으로 70%, 일본으로 20%, 유럽으로 10% 수출함. 수출 단가는 한국 수출의 경우는 톤당 420~380불인 반면, 일본 수출은 톤당 650~750불임. 이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김치는 수출 적합 기준이 까다로워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생산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임.
- 김치 수출은 한국내 유통망을 운영하다가 생산과 유통의 전단계에 걸

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까지만 전담하고 수출 및 통관업무는 수입업체에 맡기고 있음. 주문량은 작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상황이며, 교주에서 수입업체의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보고 폐쇄되는 공장도 일부 있음.

- 해익식품은 김치공장을 3개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김치 주문량이 50% 이상 감소하여 1개는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1개도 운영을 중단할 계획하고 있음. 운영을 중단할 경우 작업하던 인력은 다른 가공공장(양념류, 젓갈류 등)으로 감. 운영주들은 직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주로 휴업하는 경우가 많음. 전체 공장 중 30~40% 내외가 휴업, 가동율을 줄이고 있음.